팔만대장경 DB화 · 오대산 사고본 환지본처 '본격화'

문화재청 예산 1조 3508억원 확정
팔만대장경 디지털 목록 구축 추진
미인경본 인경 후 디지털 목록 전환

월정사 설립 전시관 국립시설 변모
상반기 리뉴얼 시작해 하반기 개관
문화재관람료 지원에 421억원 편성
해묵은 관람료 갈등 해소 도움될 듯


해인사 장경판전에 있는 팔만대장경 경판. 이를 인경해 DB화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오대산 왕조실록 · 의궤 박물관 전경. 국립시설로 전환되며, 이후 오대산 사고본이 환수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디지털 자료 목록(DB)화 작업이 추진된다. 또한 불교계 숙원사업이었던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 의궤의 월정사 환지본처가 비로소 올해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관람료 지원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해묵은 갈등 문제 해소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구랍 26일 "2023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2.4% 늘어난 1조 3508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본 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1494억 원 늘어난 수치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421억 원), 고도 보존 및 육성(21억 원),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운영(15억 원), 문화재 재난예방(21억 원) 등 지역의 문화재 보존 · 활용 강화 및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573억 원이 증액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으로 미래 문화자산 보호기반 구축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품격 있는 활용 △세계 속 우리 유산의 가치 확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데이터에 기반한 문화유산 보존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팔만대장경 디지털 자료 목록(DB) 구축(11억 원) △문화유산 원형기록 3차원 자료 목록(DB) 구축 · 개방(142억 원)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90억 원)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 보급(43억 원) △대표유산 디지털 원형데이터 구축(35억 원) 등이 추진된다.

해인사에 따르면 '팔만대장경 디지털 자료 목록(DB) 구축' 사업은 팔만대장경 중 인경이 이뤄지지 않았던 경판을 인경한 뒤, 디지털 자료를 목록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석심 해인사 종무실장은 "팔만대장경 디지털 자료 목록화 사업은 꾸준히 논의가 있어왔고, 진행된 바도 있다"면서 "다만 디지털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오래전 DB들은 현재 활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앞으로 대장경 DB구축은 꾸준히 이뤄져야 하는 국민적 대작 불사"라고 설명했다.

지역과 현장 중심의 문화유산 관리 사업에는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운영 사업(15억 원)을 비롯해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지원(421억 원) △지역 연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268억 원) △수도권 및 전북문화재연구센터 건립 (123억 원)등이 진행된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제자리 찾기는 불교계의 숙원으로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는 환지본처를 위해 '오대산 왕조실록 · 의궤 박물관'을 건립하기도 했으며, 환수 운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최종적으로는 월정사는 '오대산 왕조실록 · 의궤 박물관'을 국립시설로 전환키로 했으며, 올해 중으로 국립화 작업이 이뤄진다.

이병섭 월정사 기획실장은 "월정사의 '오대산 왕조실록 · 의궤 박물관'은 올해 3~4월 중 리뉴얼 작업을 거쳐 하반기에 국립시설로 전환돼 개관될 예정"이라며 "오대산 사고본 왕조실록과 의궤는 국립전시관 전환 · 개관에 맞춰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지원으로 421억 원이 편성된 것도 큰 의미다. 이는 2022년 4월 문화재보호법이 일부 개정되며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할 시 해당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예산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부터 전국 문화재 관람료 사찰들이 관람료를 감면하면 이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조계종 기획실 관계자는 "종단의 노력으로 문화재관람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 것은 큰 성과"라면서도 "지원 방식이나 정산 문제 등 협의할 사안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당 상묵 대강백 추모다례와 부도비 제막식

구랍 24일 강화 전등사에서
대중 3백여 명 참석해 봉행
이번 재발간한 〈금강경 강설〉
경전 봉정식도 함께 거행해


일주문 옆 부도전에서 봉행된 인공당 상묵 대강백 스님 부도비 제막식 모습.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주지 여암 스님)는 구랍 24일 무설전에서 인공당 상묵 대강백 제22주기 다례재를 봉행했으며, 이어 부도전서 상묵스님 부도비도 제막했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다례재는 헌향과 헌화 헌다에 이어 인공당 상묵 대강백의 생전 육성법문 및 음성공양 순으로 진행됐으며, 다례재에 앞서 재발간한 인공당 상묵 대강백의 〈금강경 강설〉을 부처님 전에 봉정하는 봉정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등사 조실 세연 스님과 회주 학롱 장윤 스님을 비롯해 화암사 회주 정휴 스님, 불국사 승가대학원장 덕민 스님, 쌍봉사 회주 영조 스님,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직지사 주지 법보 스님, 달마사 회주 진화 스님, 능인학원 이사장 법광 스님, 호법부장 현민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무량회장 진각 스님,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 상묵 스님의 제자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다례재를 마친 대중들은 사찰 입구의 부도전으로 자리를 옮겨 인공당 상묵 대강백 부도비 제막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불국사 승가대학원장인 덕민 스님은 행장 소개를 통해 1,989자로 구성된 비문을 한자씩 모두 읽으며 생전에 친분이 깊었던 상묵 대강백 스님을 추모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고성 화암사 회주 정휴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상묵 큰스님은 근현대 교학에 지평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교학의 당간지주를 아주 높이 세운 눈밝은 종장이셨다"며 "오늘 이 부도비를 제막함으로서 스님께서 평소 지녔던 진면목과 인천의 안목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고 유불선의 진수가 이 비속에 담기게 되었다"고 극찬했다.

이어 전등사 회주 학롱 장윤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은사 스님께서 입적하신지 올해로 22주기를 맞는다. 좀 더 일찍 부도비를 만들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하지만 스님의 평소 가르침을 잘 실천하고 수행정진하는 것만이 이런 아쉬움을 덜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서원했다.

이날 제막된 부도비 비문은 불국사 승가대학원장인 덕민 스님이 짓고, 글씨는 문봉선 서예가가 썼으며, 부도비는 대한석상 이재순 석장이 제작했다.

한편 인공당 상묵 대강백은 1953년 공주 마곡사서 서운 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1966년 연주암 주지, 1985년 경주 불국사 강원 강주 역임, 1994년 동국역경원 역경위원에 이어 1995년 승가대학원 교수와 전등사 회주 등을 역임하며 경전포교에 매진했다. 1995년부터 오전에는 간경, 오후에는 금강경, 법화경, 반야심경을 금분 사경하며 정진했으며, 2000년 12월 28일 제자와 대중스님들을 부르시고,

사대금리주(四大今離主)
진인화중소(眞人火中笑)
심마시하물(甚磨是荷物)
개중무불조(箇中無佛祖)

이라는 열반송을 남긴채 법납 47세, 세납 64세의 일기로 입적했다.

강화 전등사=김주일 기자

여수 향일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빼어난 해돋이 경관 명소 유명
여수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여수 향일암 대웅보전 전경.

남해를 대표하는 해돋이 명소인 여수 향일암이 '명승'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어 경관적 가치가 높은 자연유산인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했다"고 구랍 20일 밝혔다.

'여수 향일암 일원'은 남해 수평선 위로 솟아오르는 아름다운 해돋이 경관과 하늘과 맞닿은 봉황산(금오산의 모산)의 지평선, 여수만 건너 남해 금산 등 수려한 해상경관을 볼 수 있는 최적의 자연 조망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또한, 거북이(금오산 지형)가 경전(향일암)을 등에 짊어지고 남해 용궁으로 들어가는 지형적 형상과 거북이 등껍질 무늬의 암석들, 해탈문 등 석문(石門) 그리고 기암절벽 사이의 울창한 동백나무숲이 서로 조화를 이뤄 그 자체의 경관도 빼어나다.

이번 명승 지정에 여수 향일암과 여수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여수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은 "향일암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출 명소이자 4대 기도처"라면서 "역사적, 자연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명승으로 지정된 만큼 보존 · 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1979년 상 · 하백도 지정 이후 40년 만에 여수 지역에서 또 한 곳의 명승이 지정됐다"면서 "향일암과 문화재청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위상에 맞게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일암과 주변 문화유산을 연결하는 문화관광투어 상품을 개발하는 등 명승의 가치를 알리는 방안을 계획중"이라며 "우선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향일암 개선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 양행선 광주지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제 15교구 본사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조계종 종정예하 방장 중봉 성파대종사
주지 이산 현문

율주 우설 덕문
유나 보탑 천진
강주 인 해
노전 지 범
율원장 도 암
염불원장 영 산
보살선원장 노 암
총무국장 현 덕
기획국장 혜 명
교무국장 청 우
재무국장 현 담
사회국장 석 운
포교국장 인 경
호법국장 효 일
박물관장 송 천
원주 범 용
농감 서 일

영축총림 통도사 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 583)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www.tongdosa.or.kr

